



환율 하락엔 환차손 발생 수익률 급락

세금·수수료·해당 국가 성장여력 고려도 국내펀드와 분산차원 포트폴리오 구성을

올 한해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우지수가 12,000포인트를 넘기며 최고치를 경신했고, BRICs라 불리는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의 경우 올해도 22~69% 정도가 올랐다.

이러한 세계적인 증시 활황에 따라 올 한해 국내에서는 10조원 가까운 자금이 해외펀드로 몰리면서 총 투자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올 한해 7% 정도의 수익률을 그친 반면, 중국 주식형 펀드는 대부분 40%의 수익률을 넘기며 국내 주식형 펀드와 현격한 격차를 드러냈다. 하지만 해외 투자시 환율, 세금, 수수료, 해당 국가의 성장여력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 투자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얼마나 투자의 비교우위를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단지 올 한해 수익률이 해

한 국내펀드와의 분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환율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투자시점의 환율과 매각시점의 환율에 따라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천원인 상태에서 1천만원을 투자했고, 1년이 지나 수익률이 10%가 낮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때 원화 강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900원이었다면 최종 원화 평가액은 990만원으로 오히려 1% 손해가 발생한다.

즉, 투자시점에 비해 원화가 강세인 상태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경우 그만큼 환차손이 발생하게 돼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단기투자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환

이 좋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높은 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배당차익만 과세하기 때문에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위험이 낮다. 하지만 해외 펀드의 경우 발생한 수익 전체에 대해 15.4%를 과세할 뿐만 아니라 4천만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해외펀드는 1% 이상의 선취수수료가 있으며, 운용보수 또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비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와 비교해 수익률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 투자를 바라야 한다.

결국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의 분산차원에 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율, 세금과 같은 위험요소를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TNV 파이낸셜클럽 팀장)

해외 투자시 유의할 점

■기업인들이 꼽은 내년 최대 경제이슈

70% “경기회복”
55% “FTA협상”

내년도 우리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이슈는 경기회복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들이 바라보는 2007년 한국 경제’ 조사결과(복수응답)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로 ‘경기회복 여부’(70.3%)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미 FTA협상 체결 여부(55.0%)’, ‘환율안정 여부(43.2%)’, ‘부동산가격안정 여부(36.0%)’, ‘유가 및 원자재가격 안정 여부(33.3%)’ 등이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기업인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4%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응답자의 4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5%(응답비율 13.8%), 3.5%(응답비율 9.2%), 4.3%와 5%(응답비율 각각 8.3%)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 회복시점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49.6%가 ‘2008년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엔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57.7%)이 많았고 평균 원/달러 환율 수준은 929.7원으로 전망했다. 원/엔(100엔) 환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41.5%)이 가장 많았고 환율전망은 811.7원으로 예상했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은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고 내년 유가전망은 56.2달러(두바이유 기준)였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2%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올해보다 못할 것’이라는 답변도 32.4%에 달했다.

연립뉴스

외화예금 기준을 7%로 인상

5.0%서... 환율 진정책 일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외화예금의 지급준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 이달 23일부터 시행기로 했다. 금통위는 그러나 풀금리는 연 4.50%로 현 수준에서 동결기로 결정했다.

요구불 외화예금의 기준을 인상 결정은 원화예금의 기준을 인상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최근 시중은행들의 연화대출 급증으로 외화부문을 통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은행들의 외화차입 확대에 인한 원·달러 환율하락 압력을 완화하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화예금의 기준을 조정은 2000년 4월 요구불 외화예금 기준을 7.0%에서 5.0%로, 저축성 외화예금 기준을 7.0%에서 2.0%로 인하한 이후 6년만이며, 외화예금 기준이 인상된 것은 1990년 3월 이후 16년만이다.

금통위는 요구불 성격 외화예금 이외에 저축성외화예금과 외화양도성에 금정서의 기준을 현행 2.0%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특수주채 외화예금의 기준

율도 현행 1.0%로 유지했다.

외화예금 기준을 인상 조치로 외화예금의 평균 기준율은 현행 3.6%에서 4.8%로 1.2%포인트 상승하고 필요기준은 8억5천만달러에서 11억1천만달러로 2억6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화대출을 통한 시중 유동성 증가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원·달러 하락압력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풀금리는 지난 8월 연 4.50%로 0.25%포인트 인상된 후 내달 연속 동결됐다.

이번 결정은 시중유동성의 가파른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급등세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등 환율 압박이 커지고 있고 이것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을 통해 “민간소비의 신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건설투자의 부진도 완화되는 모습”이라는 표현으로 최근의 실물경기를 진단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재계약 촉구 '광주시 자동차검사사업조합'(이사장 조정래·이하 정비조합) 조합원들이 광주시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호남대물보상부 앞에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재계약 촉구'와 '직불제 도입'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비조합은 현행 시간당 최저 1만8천300원인 정비수가를 1만9천500원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8일까지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삼성화재 측은 정비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시 향후 예상 소득도 반영

금감원 여신심사 기준 마련 내년 시행

앞으로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의 소득과 부채 뿐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 미래의 현금 흐름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거나 불확실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의 문이 좁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주 금융기관들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선진화 작업'을 구성, 이런 내용의 여신심사 기준을 마련해 내년 1·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을 선두로 보험사

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는 생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대부분 개인의 자산이나 현금흐름에 관계없이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금융권별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현행 LTV 적용률 내에서 실제 채무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달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기관별 LTV를 보면 주택투자지역에서 대출 기간 10년 이하 아파트와 대출 기간 10년을 초과하면서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40~50%, 대출 기간 10년을 초과하는 6억원 이하

아파트는 60%, 주택은 대출 기간에 따라 50~70%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와 주택은 50~80%, 기타 지역은 60~80%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한해 현재 소득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이자액을 반영해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행 LTV 적용률 내에서 개인의 현재 소득과 부채, 신용등급, 금융자산, 향후 예상 소득액, 예상 근무연수 등을 포괄하는 지표들 만들어 대출 금액에 차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휴면예금 활용 서민 창업 지원”

권오규 부총리... 분양가 인하 등 구제 방안 연내 발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내 당정협의 거쳐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신규업무 확대도 검토하겠다”면서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리면서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조금씩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공급일정 조정, 물량 확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세부 과제와 진행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면서 “특히 분양가 문제를 조기 결론내기 위해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의 검토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부세 위헌 문제는 입법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전문가 자문 결과에서도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부동산 세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소형·저가 주택보유자도 ‘무주택’ 분류 검토

2008년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변경되는 가운데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은 무주택자의 범위에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를 포함시킨 청약제도 개편안을 새로 마련,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7일 말했던 개편안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무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명시 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지.비.씨 유통(주)	사무관리/영업관리 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11	062-350-8170
(주)남일동	삼성RT(렌탈)기사 및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2	062-236-2804
오케이아웃도어컴	등산용품매장 광주/순천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2-2278-8797
금호컨벤션홀	웨딩팀 일반사무 및 방문고객 상담사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6	062-350-0041
(주)대현티에스	온라인 자동차 보험 상담사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31	062-373-1300
원시스(주)	인프라 구축, N/W 보안, 방화벽 경력자 모집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15	062-384-1161
연호전자	품질관리, 엔지니어 신입사원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411-0772
(주)사랑방유통	메디자이너 경력자 모집	초대졸/경력3년	1600~1800	12/15	062-265-8900
(주)남영엘에프 광주지점	백화점 및 전문점 판매업무 사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15	062-524-6360
심포니(에너지)주	해외 영업/구매/마케팅 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7	02-949-7747
조양정밀공업(주)	생산 주부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30	062-946-2511
글로벌광통신(주)	PLC관련 프로그래머 가능자 모집	대학원/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605-9744
(주)첨단전기	전기공사 기사 및 경력, 제품 디자인 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676-0204
(주)조형에스피	인테리어 설계, 시공, 현장관리, 감독관 모집	초대졸/경력3년	1600~1800	12/31	062-603-117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삼성전자 모니터 판매 세계 1위

3분기 시장점유율 15.6%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세계 모니터 시장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7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모니터 부문에서 판매 점유율 15.6%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1, 2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델은 14.7%로 2위로 내려앉았고, HP가 9.6%, LG가 8.6%로 뒤를 이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내년 LCD TV 값 최대 25% 하락”

소니 회장 전망

소니가 내년 LCD TV 가격이 올해 대비 최대 25%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스탠 글래스고(Stan Glasgow) 소니전자 회장은 “올해 LCD TV 가격은 작년 대비 25~30% 가량 하락했다”며 “내년에도 올해 대비 20~25%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샌프란시스코에서 밝혔다.

올해 LCD TV 가격은 소니가 예상한 것보다 5~7% 더 떨어졌다.

글래스고 회장은 “LCD 가격 붕괴는 계속되었지만, 올해와 같은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며 “HD급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휴면에금계좌 환급 나선다”

시중은행, 30만원이하 활동계좌로 자동이체

시중은행들이 30만원 이하이면서 활동계좌를 보유한 휴면예금 계좌에 대해 자발적인 환급에 나섰다.

하나은행의 경우 30만원을 초과하거나 활동계좌가 없어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휴면예금 보유사실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휴면계좌는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이고 활동계좌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일출금통장이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10월 은행연합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달부터 휴면예금 환급에 나섰다.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에 대해 같은 은행의 활동계좌로 자동적으로 잔액을 이체시켜 주는 방식이다.

하나은행은 6일부터 환급에 들어갔으며 기업은행도 오는 11일부터 자동이체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올해 안으로 환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당수 휴면계좌가 이번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급규모는 전체 휴면예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0만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의 경우 명의신탁 명의인출 현역자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 활동계좌가 없는 경우 고액정보유출이나 금융실명법 문제로 타행 활동계좌로 이체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각각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30만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 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전화안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체 환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